

# 마르크스主義의 變化

李容弼\*

<目次>	
I. 머리말	V. 러시아 마르크스主義
II. 마르크스主義의 本質	VII. 스탈린 後의 마르크스主義
III. 古典的 마르크스主義의 互解	VIII. 東歐에서의 修正主義와 네오마르크스主義
IV. 修正主義	
V. 正統派 마르크스主義	IX. 맷 음 말

## I. 머리말

마르크스主義는 哲學, 經濟學, 歷史學, 社會學 그리고 政治學 등의 여러 학문영역들이 複合的으로 體系化되어 있다. 물론 마르크스는 資本主義體制를 崩壞시키기 위한 實踐的命題에 입각해서 그의 사상을 정립시키려 했기 때문에 수많은 矛盾들을 內包하게 되었다. 이러한 마르크스主義思想體系의 矛盾들은 이미 마르크스의 생존시에 露呈되기 시작하여,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등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 論爭들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모순들은 특히 資本主義體制의 變化와 더불어 마르크스主義의思想的分裂을 더 刺戟하게 되었다.

그 후 19세기 말로부터 20세기에 접어들면서 修正主義, 正統派 마르크스主義 그리고 러시아의 볼셰비즘간의 이론적 논쟁과 심각한 갈등은 더욱 복잡하게 얹혀져서 반세기의 세월을 거쳐오면서 다양하게 마르크스主義의 사상적 흐름을 표출시키게 되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오면서 古典的 마르크스主義가 瓦解되고, 修正主義, 正統派 마르크스主義, 그리고 러시아 마르크스主義 즉, 레닌主義가 등장하였다. 소련에서는 1924년 스탈린이 집권하면서부터 전무후무한 전체주의적 지배체제가 확립되었고 마침내 마르크스主義는 프롤레타리아獨裁의 명분 아

\* 서울대 국민윤리학과 교수

래서 스탈린 개인의 전제주의로 왜곡되었다. 그러나 스탈린의 사망후(1953년) 비스탈린화운동이 본격화됨으로써 소련을 비롯한 共產主義 블럭에는 경직화된 체제와 教條主義的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었고, 이것은 제한된 의미에서의 개혁과 자유화의 분위기를 자극하기에 이르렀다. 더우기 이와 같은 추세는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國際政治情勢의 흐름과 맞물려서 사회주의의 體制內的改革과 開放을 촉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사회주의 체제로 하여금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全面的 再解釋, 나아가서는 체제 자체의 根本的 變革을 招來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할 수 밖에 없는 단계에까지 발전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마르크스主義의 변화의 巨視的 흐름을 概略的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 Ⅱ. 마르크스主義의 本質

마르크스는 위에서 언급한 革命的 實踐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소위 理論과 實踐의 結合을 강력히 내세웠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意識은 인간의 實踐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社會的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存在를 決定하는 것이 人間의 意識이 아니라 도리어 그 意識을 決定하는 것이 社會的 存在라고 생각하였다(Giddens, 1971:41). 그러나 操作的 用語는 社會的 存在라는 것이며 意識은 社會에 있어서 人間活動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一般化에 彙結시키게 된다.

階級社會에 있어서 특정한 이데올로기의 형태에 대한 마르크스의 개념은 이와 같은 一般的 考慮들에서 연유된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프롤레타리아가 어떤 다른 階級보다도 社會體系에 더 깊이 그리고 중요하게 관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가 近代的 機械產業에 있어서 實際의 商品製造者이자 資本主義 变천의 實際的 受難者들이며,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의식은 모든 이데올로기를 終結짓는 이데올로기로 보았다(Meyer, 1969:96).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階級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가 商品으로서의 인간의 意識을 깨닫게 되며 이들이 資本主義의 關係들의 가장 깊은 비밀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資本主義의 성질이 명백하게 될 때 프롤레타리아는 疏外를 終結시키는 자명한 論理的 스텝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

한 의미에서 프롤레타리아의 階級意識이 모든 이데올로기를 終結시키는 이데올로기라고 파악한 것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이것은 資本主義體系의 非人道性과 摦取의 實際的 根源들을 폭로할 수 있으며 역암된 人類를 위해 변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프롤레타리아의 階級意識은 하나의 广泛한 또 도전하는 휴머니즘으로 轉換되고 이 휴머니즘은 처음으로 科學的이고 現實的인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주장은 마르크스主義적 구상의 骨幹이며 동시에 矛盾이라고 마이어는 지적하고 있다. 그는 마르크스主義가 인간의 지혜, 合理性, 歷史創造能力에 대한 相衝的 見解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마르크스의 疏外理論은 직접 이데올로기 이론으로 誘導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疏外理論에 의하면 文明人은 分業에 의해서 만들어진 좁은 상자 속에 갇히게 되고 현실로부터 차단됨으로써 현실을 概觀, 認知할 수 없다는 것이다. 文明의 發展이 시작된 다음 인간의 지혜는 더욱 더 협소해지고 絶望的인 것이 된다. 그런가 하면 거기엔 반대로 인간의 프로메테우스적 이미지와 밀접하게 연결된 唯物論의 신념이 있다. 唯物論의 立場에서 볼 때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비밀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르크스主義 理論構成에서 知識을 획득할 수 있는 人間能力에 대한 두 가지 見解간의 矛盾이 選擇된 人民神話(chosen people's myth) 構成에 의해서 해결됨을 본다(Meyer, 1969:67). 이러한 理論展開樣式에 의해서 프롤레타리아에 있어 實在와 現實的 理解, 實踐과 理論이 하나가 된다. 더욱이 마르크스는 勞動階級이 진정으로 스스로를 의식하고 또한 環境을 의식할 때 思想이 진실로 현실적인 것이 되며 그래서 觀念과 現實, 理論과 實踐이 프롤레타리아 안에서 뿐만 아니라 知識層 안에서 수렴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프롤레타리아의 意識이 高揚될수록 프롤레타리아革命이 다가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革命이 다가올수록 社會主義 思想은 실제의 사회발전에서 그 근원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歷史가 전진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프롤레타리아鬪爭이 보다 뚜렷하게 윤곽을 드러내게 된다. 마르크스主義에 의하면 그들의 共產主義는 철학적 사색에 의해서 감지되는 理想的 狀態가 아니라 오히려 階級의 實際的 運動의 표현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이제까지 勞動階級으로서 존재했던 것이 그 자체를 위한 계급이 되고 그 자체의 성질과 환경을 진정으로 의식한 階級이 된다. 그래서 역사상 科學的

概念(階級意識)을 획득한 첫 계급이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모든 虛偽意識이 소멸된다. 이렇게 될 때 社會主義者들은 그들의 心理 속에서 科學을 추구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歷史發展의 樂觀論의 前提 위에서 오로지 프롤레타리아 革命 자체가 勞動階級에게 진정한 意識을 부여하며 社會의 事態들을 움직이는 데 知的으로 노동계급을 적응시킨다는 것이다. 共產主義意識을 大衆的 規模에서 형성시킬 수 있는 인간성의 변화는 혁명을 성취하려는 실천적 활동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 자체와 社會關係들에 대한 극복을 확실하게 하는 프롤레타리아혁명이 진정한 철학적 성취가 된다는 것이다. 觀念이 그 자체의 실현을 지향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現實은 스스로 觀念을 指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마르크스는 주장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理論은 歷史의 過程들의 완성을 돋는가? 인간의 心理에서 그러한 過程들을 劇化시킴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위치, 熱望들, 利益들을 意識하게 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독일의 마르크스主義者가 지적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 階級運動을 創出하지 않았으며 또한 프롤레타리아 階級意識을 創出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새로운 의식을 위해서 적절하게 이론화하고 또한 과학적 표현을 創出하였고 이것에 의해서 동시에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을 보다 고차적으로 高揚시켰다. 프롤레타리아의 自然發生的 階級의 見解들을 理論的概念들과 原理들에로 變換시키고 나아가서는 소위 科學的 社會主義體系를 萬能的으로 구성한 것은 어떠한 상황아래서도 프롤레타리아의 實제적 歷史運動의 단순한 적극적反映이라고 간파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그것이 도리어 實際의 歷史過程 자체의 본질적 요소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프롤레타리아의 歷史的 運動은 獨立的 및 統合的 프롤레타리아 階級의 形성없이는 獨립적이거나 統合의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개인적 마르크스…… 學者의 見解 이상의 含蓄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思想의 부분을 형성한 觀念의 表현이기도 하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非合理的 階級利益은 社會主義運動에 있어서 진정한 理由와 結合된다. 共產主義理論은 프롤레타리아 階級利益을 反映하며 그 계급으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시에 프롤레타리아는 자신들의 條件들이 그 性質과 根源에 있어서 끊임없이 教訓으

로서 이용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르크스主義思想에 있어서思想과現實, 그리고理論과實踐은結合된다(Meyer, 1969:100).

그러나 마르크스主義에 있어서理論과實踐의合致는 단순한 프롤레타리아의階級意識의 형식에 의해서만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철저한現實主義의感覺과行動이 없이 성취될 수 없음을 간파한 마르크스는決定的武器에 대해서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 理論과實踐을 합치시키려는 마르크스의 목적은共產主義의觀念을 전파시켜서 革命을 초래시키려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主義는 단순히社會主義와 그問題들을理論化하려는 것이 아니라 혁명을 실천하기 위한理論的課題를 해결하려는 테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상에 있어서 중심적인 것은 어디까지나 혁명의관념을 확립하고 이에 의거해서 실천하는 데 놓여 있다. 그래서 그들은一擊을 가할 수 있는時期를 앞당겨 오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Heiss, 1975:359)

그러나 한편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그들의「共產黨宣言」에서 혁명의 성취가 두개의 필수 및充分조건 즉 1) 프롤레타리아의 급격한窮乏化와 2) 그러한窮乏化原因에 대한 명백한 의식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필수 및 충분조건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全生涯에 걸쳐서 그들의著書에 표현되고 있다. 이 두개의 조건은社會의經濟의下位構造내에 있어서成熟의 결과라고 주장된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社會制度들이不當하거나 또는부정하다는意識은 그러한制度들이顛覆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한다. 그래서意識이 물질적생활조건의반영이라는命題를 정당화시키는 것이다.經濟의기초와 정치의식간의관계는 놀랍게도 간단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資本主義國家들의차이와敵對意識이 산업발전의과정에서흡수되고 있다하더라도획일적계급의식은 자연발생적으로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즉오로지프롤레타리아의자연발생적階級組織이존재한다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의 자연발생적反射行動은共產黨을 통해서 또는共產黨과는관계없이 계급의식에서표현되고 정치행동에서 그실천적표현을찾게된다 는 것이다. 革命은 의도적으로 또변덕스럽게조성되는것이아니라개별적정당과전체계급의意志와리더쉽과는전혀관계없는보편적인條件들의필연적결과라고하는것이다. 동시에黨은階級의interest을명백히대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革命의 力學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서 그 후 중요한 修正이 가해지게 되었다. 그들의 역사이론을 具體的 歷史狀況에 적용했을 때 그들의 初期評價는 상당히 修正되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마르크스의 「프랑스에 있어서 階級鬪爭：1848～1850」(The Class Struggles in France: 1848 to 1850, 1850)과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에서의 18일」(The 18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 1869), 그리고 엥겔스의 「독일：革命과 反革命」(Germany: Revolution and Counter-Revolution, 1851)에 나타나고 있다. 마르크스는 經濟發展과 社會階級들이 事態의 표면적 흐름에서 상호영향을 미치고 있던 역사적 상황을 목격하였다. 「共產黨宣言」에 나타났던 단순화된 階級構造는 매우 복잡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階級意識, 階級利益, 그리고 표면화된 政治行態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얹혀져 있음을 마르크스는 깨닫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표면화된 政治行態를 객관적 階級 現實과 연결시킴에 있어서 難點이 가로 놓이게 되었다. 계급을 정의한 客觀的 經濟役割과 客觀的 利益들에 대한 階級意識을 定義한 客觀的 經濟役割 간의 단순한 一對一의 대응관계는 그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이러한 관계는 복잡한 것이며 또한 역설적인 것이라고 하겠다(Gregor, 1965:180).

古典的 마르크스主義는 생활의 物質的 條件들과 世界歷史에서의 主役인 계급의 계급의식 간의 복잡한 관계를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러나 古典的 마르크스主義의 革命概念은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가 충분히 意識을 갖추게 되고 해방을 위한 社會主義革命이 모든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협조적으로行動하는 대다수 인간의 行動이 될 것이라는 確信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르크스主義의 革命理論이 구체적 역사발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反證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에 의한 혁명을 끊임없이 조장 내지 촉진하기 위한 背後動機에서 설명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이미 혁명의 테크닉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였다. 하이스(Robert Heiss)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마키아벨리도 이러한 관계를 파악했지만 정치적 실천의 活動的 原則들을 行動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마르크스만큼 성공하지는 못하였다(Heiss, 1975:329).

### III. 古典的 마르크스主義의 瓦解

1848년 共產黨宣言 이후부터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死亡한 時期에 이르기 까지 共產主義者들은 그들에 의한 革命이 가까운 장래에 資本主義를 파괴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 시기에 일어난 革命은 그들이 생각했던 바와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었으며 또 勞動者들에 의한 革命도 아니었다. 특히 엥겔스가 死亡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마르크스의豫言대로 革命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마르크스主義者들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리해서 19세기 말에 이르러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추종자들은 古典的 마르크스主義가 정치적 행동을 유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만일 古典的 마르크스主義가 옳다면 프롤레타리아는 계속해서 革命的이 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에 나타난 證據, 특히 獨逸의 경우 프롤레타리아가 革命的이라고 하기 보다는 본질적으로 改革主義의 있다. 또 만일 인간의 의식이 물질적 생활조건의 반영이라고 한다면 프롤레타리아는 계속해서 革命的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마르크스主義 발전은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1895년 엥겔스의 사망과 더불어 古典的 마르크스主義는 제 1 차 세계대전의勃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古典的 마르크스主義는 일련의 사건 발생과 이에 수반된 20세기의 정치적, 사회적 및 지적 측면에서의 두 개의 革命運動으로 말미암은 격동 상황에서 와해되기에 이르렀다. 兩次 大戰間의 기간에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친 것은 두개의 급진적 運動, 즉 레닌主義와 파시즘이라고 하겠다. 이 두 運動은 古典的 마르크스主義의 純粹적 또는 간접적 부산물이라고 하겠다(Gregor, 1974:25). 레닌은 제정 러시아의 社會民主黨의 한 파벌지도자였으며 뜻솔리니는 군주제의 이태리에서 社會主義政黨內의 좌익파벌의 지도자였으나 그 누구도 정신적傳承의主流로서 남아있던 古典的 마르크스主義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았다. 레닌은 그의 運動, 綱領 그리고 효율적 정책을 마르크스主義의인 것이라고 특징 지우면서 그의 정통성을 주장하였다. 물론 레닌은 뜻솔리니의 파시즘의 강령과 정책이 마르크스主義의인 것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였다. 그러나 양자는 명백히 드러난 엘리트主義의 運動이다. 왜냐하면 양자는

소수에 의한 革命을 주도하고 폭력을 정치권력 장악에 있어서 필수불가결의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Gregor, 1974:25). 이리해서 古典的 마르크스主義는 修正主義, 正統派 마르크스主義 그리고 러시아 마르크스主義의 등장에 의해서 와해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 IV. 修正主義

엥겔스의 死亡은 다양한 修正主義的 경향을 표출시켰고 古典的 마르크스主義의 중요한 측면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 중에서도 체제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마르크스가 그의 후계자들에게 남겨준 그 것과는 상이한 것이었다. 즉 그것은 修正主義의 立場이라고 하겠다. 古典의 마르크스主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또 가장 신랄하게 批判을 가한 것은 베른슈타인(Edward Bernstein)이 있다. 그는 獨逸社會民主黨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마르크스主義 이론가였으며, 또한 엥겔스와 카우츠키(Karl Kautsky)의 신뢰를 받았다. 베른슈타인은 古典的 마르크스主義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批判을 가한 일련의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가장 뛰어난 이론가라고 인정되었으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 더 資本主義에 대한 마르크스主義의 분석이 틀렸거나 또는 낡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클라코우츠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수정주의자들은 마르크스主義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전통적 교의를 수정하려고 노력하였다.” (Kolakowski, 1978a:98) 그는 또한 영국의 ‘페이비언’ 협회의 일부 지도자들과 교류가 많았으며 결국 마르크스主義를 거부하고, 그는 社會는 國家社會主義 制度를 향하여 점진적으로 진화한다는 그들의 신념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사실 그는 페이비언 협회가 영국 勞動運動에서 수행했던 것과 같은 역할을 獨逸에서 수행했던 것이다.

베른슈타인은 후에 그의 觀察이 成熟됨에 따라서 마르크스主義의 사상을 繼承한다는 주장을 포기하고, 마르크스主義의 正統性 보다는 자기 자신의 立場의 妥當性을 위해서 이론을 전개하였다. 정통적인 마르크스主義者들에게 대한 그의 批判은 1897년에 發刊된 ‘獨逸社會民主黨의 前提와 任務’라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는 마르크스가 資本主義制度의 절박한 崩壞를 주장한 것은 키다란 誤謬라고 주장하였다. 생산수단의 所有가 점점 더

소수자의 수중으로 集中되면 될수록 社會의 상이한 계급간의 간격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따라서 階級鬪爭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예언을 그는 부인했다. 베른슈타인은 오히려 마르크스와는 반대로 수천명의 株主들에게 그 소유권이 분산되는 주식회사의 발달이 모든 등급의 資本家들의 수를 증가시키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베른슈타인은 마르크스가 資本主義의 발달이 階級鬪爭을 초래하고 나아가서 중산계급이 소멸된다고 예언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증가될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그에 의하면 정치적 民主主義의 發展, 즉 勞動組合을 인정하고 보호입법을 통해서 勞動者들의 착취를 제한하고, 전국민적인 社會福祉와 社會保障制度를 도입하려고 하는 國家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마르크스의 예언대로 資本主義의 破局이 초래될可能性이 減少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社會主義에는 종국적인 목표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社會主義者들은 그 성격을 예측할 수 없는 장래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표시할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運動이 全部이다’라는 語句를 사용하였다. 그는 黨이란 오직 일정한 부분적인 改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에 집중해야 하며, 이러한 改革의 總和는 社會의 관리를 점차적으로 상업적인 토지소유의 과두제로부터 진정한 民主主義으로 이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또한 勞動價值說은 추상적인 표상에 지나지 않으며, 資本主義經濟의 사실상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資本主義는 그 내재적 모순을 극복할 수 없으므로 經濟恐慌이 더욱 격화되어 드디어 붕괴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베른슈타인은 그러한 마르크스의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서구의 주요공업국가들에 있어서 富와 交易의 엄청난 확장 그리고 信用制度의 신축성 등은 資本主義를 더욱 안정시켰고, 그 이상의 경제적 불황은 있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社會民主主義者들은, 勞動者들이 침정권도 없었고 또한 고용주들의 착취가 성행했던 시대에 나타난 마르크스의 이론과 그 革命戰術을 믿기보다는 민주적인 방법을 통한 社會의 점진적인 변화를 기대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社會主義運動은 個人的 自由를 존중하는 自由主義의 계승자이므로 프롤레타리아독재에 대해서 반대하였다.

이와 같은立場에서 볼 때 國家란 페이비언主義者들에게 있어서와 마찬가

지로 베른슈타인에게 있어서도 계급조직이 아니었다. 國家는 勞動者들에게 상당한 利益을 확보해 주는 공동협력기관이었다. 勞動者들은 資本主義者들로부터 어떤 사실상의 반발을 받음이 없이 자기들의 투표권을 현명하게 사용함으로써 자기들이 希求하는 바를 모두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후 10년간 계속해서 베른슈타인은 獨逸社會民主黨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社會主義 政黨에 대해서도 치열한 이론적 논쟁을 제기시켰다. 이 시기에 마르크스와 앵겔스의 저술은 무엇이든 가장 면밀한 검토의 대상이 되었다. 그것은 社會主義者들이 해결겠지 않으면 안될 방법이었으며 그들의 理論이 과연 고도로 발전된 資本主義社會에 適用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論證하여야만 하였다.

그는 일반적으로 社會主義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것이 무 의미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마르크스主義者들이 그들의 이상에 따르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暴力革命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말짓고자 하는 過激主義者라고 반대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그는 暴力革命 후에 社會主義가 별안간 도래한다는 명제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베른슈타인에 의하면 社會主義運動은 그것이 내세운 목표, 즉 友愛의 原理가 正義의 原理로서, 이바지하는 사회라는 것에 중요성을 두기보다는 그것을 도래하는 手段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社會主義 실현은 階級鬪爭의 설교나 실천에 의해서가 아니라 民主的 方法의 확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그에게 있어서 階級鬪爭은 經濟制度에 있어서 풍토병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계급투쟁이 暴力의in 형태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사실상 사회주의의 강령을 民主的 過程에 종속시켰고, 階級의 利益을 共同社會의 利益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베른슈타인의 의견은 獨逸社會民主主義運動 안에서도 격렬한 논쟁을 제기시켰고 그 자신은 겨우 除名을 면했던 것이다.

한편, 베른슈타인은 런던에 망명하고 있던 기간에 영국의 知的 分위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고 辨證法을 일종의 呪文이라고 비난하고, 우연히 일어난 것을 단순히合理化하는 식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경우보다도 오히려 프랑스의 合理主義者의 비판적 견해를 옹호하게 되었다. 그는 社會主義를 위한 鬪爭方法에는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인간 행동의 經濟的 結果 또는 政治權力의 戰略에서만 演繹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어면妥協이人間의 고통을 덜고, 더욱 그 고통을 완화하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라면人間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져다 주는 승리보다는 차라리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베른슈타인은社會主義運動이란 현실적으로革命的인 것이 아니라改良主義의이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機會主義者 또는背叛者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그는 오히려 그를 비판한 많은 정통적 마르크스主義者들보다도 훨씬 용감하였고, 계속해서民主主義와社會主義의理想을 옹호하였다.

또 하나의修正主義의社會主義에 있어서 뚜렷한 위치를 차지했던 이론가는 프랑스의 장·조오레스(1859~1914)였다. 조오레스에 의한正統派 마르크스主義에 대한批判은 베른슈타인 이상으로 날카로운 것이었다. 베른슈타인은 주로 마르크스의洞察이 사태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지만 조오레스는 마르크스의 통찰의 일부는 이미 그 당시에 있어서도誤謬를 지니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오레스는黨內의批判的인동지의 마음 속에서 위장된階級의 敵을 찾아내는 것보다도 오히려政治的反對派의 마음 속에서 신념과 행동의 공통기반을 찾아낼 것을 열망했던社會主義의人道主義者였다. 조오레스는 “그 당시의 전형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과는 달리 사회주의의 관념이 진화론의 그것과 유사한 과학적 이론으로서 객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Kolakowski, 1978a:116). 그에 의하면 마르크스主義는 사회발전이론도 아니며 역사적 단절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인류의 가장 깊은 도덕적 본능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목표는 전인류를政治的專制主義, 宗教的迷信 및經濟的榨取로부터 해방하는 것에 있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의 이익 향상을 위한 투쟁을 부정하지 않았으나 객관적인正義의 원칙에 입각한階級的協同 및協調를 주장하였다. 때로는自黨內에서 소수파로부터 그리고社會主義 인터내셔널에서 비난을 받았지만 그는改革을 쟁취하고 절박한弊害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社會主義者가 부르조아 내각을 지지하고, 이에 입각할 것도 옹호하였다. 이 점에서 그는 베른슈타인보다 훨씬 더 대담하였다.

조오레스는民主主義의原理가 생활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였다. 그는經濟的民主主義가政治的民主主義의 타당한 귀결이라고 논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經濟的民主主義는團體交涉의 원칙 이상의 것을 의미하였다. 勞動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노동

자는 공장의 經營에 참가하도록 소집되어야 한다. 그들은 보통선거권에 의해 市政에 참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장의 경영에도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오레스는 베른슈타인과 마찬가지로 資本主義의 둘연한 終焉과 社會主義의 黎明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空想主義에 대해서 매우 의심하였다. 그래서 暴力的 革命의 불가피성에 대한 전통적 교조 대신에 漸進的 改革을 주장하였다. 이 두 修正主義思想家의 강조점은 다함께 장래에 대해서가 아니라 現在를 대상으로 해서 改革을 내걸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마르크스主義에 대한 社會民主主義者들의 修正主義 또는 漸進的 改革主義는 19세기 말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이론적 투쟁을 제기하였고 유럽 국가들에서 온건한 社會民主主義者들이 정권을 장악한 시기 이후부터 共產主義와 民主主義國家間의 갈등으로 번졌다. 이리하여 한 때 勞動運動을 서로 격투하는 분파로 갈라 놓았다. 이러한 분열은 소련과 유럽을 갈라놓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서구 국가들에서는 革命的 方법에 의한 權力掌握이 적당치 못하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던 사실이다. 폭력적 투쟁보다도 漸進的 改革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거의 누구도 부인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온건한 社會民主主義者들의 마르크스에 대한 批判도 매우 당연한 것이었으며, 만일 그들이 正統的 마르크스主義者들의 주장과 같이 暴力的 革命을 고집하였다면 아마도 서구 국가들에서는 더 치열한 계급투쟁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社會民主主義者들은 마르크스主義者들의 과격한 투쟁 방식을 거부하고 漸進的 改革 方式을택하였던 것이다.

## V. 正統派 마르크스主義

正統派 마르크스主義者들은 베른슈타인의 修正主義를 反對하였는데, 그 대표적 인물은 카우츠키(Karl Kautsky, 1854~1938)라고 하겠다. 그는 '資本論' 제 4권을 편집함으로써 마르크스의 經濟理論을 보급시켰다. 그는 사회주의자로 남아 있었지만 볼셰비즘에 반대하게 됨으로써 후에 베른슈타인과 합류하게 되었다. 그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대한 그의 모든 해석들이 그들의 教條의 純粹性을擁護하고 보존하기 위한 再解釋이기 때문에 그 자

신이 正統派 마르크스主義者라고 주장하고 있다. 베른슈타인파는 대조적으로 계급구조의 과격한 변화의 필요성과 政治的 暴動의 필요성을 옹호하였다. 카우츠키는 마르크스의 경제적 교조와 계급투쟁의 결과로서의 사회주의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러시아의 10月 革命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리 만큼 성숙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反對하였다. 革命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사회주의를 이루하려고 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그는 社會主義와 國有化를 구분하고 전자가 후자와 동일한 것이 아님을 경고하였다. 즉, 國有化의 본질은 노동계급의 조건을 개선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이리해서 正統派 마르크스主義者들은 修正主義의 입장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正統的 마르크스主義의 노장이라고 불리어졌던 카우츠키도 시종일관 마르크스의 충실한 제자로서 자처했지만 革命의 성급함을 비판하였다. 그는 社會的 發展이 평지에서 평지에로의 길을 개척하지 않고 궤도도 없는 높은 곳으로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비난하였다. 그는 미래의 고상한 꿈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 大衆에게 혁명을 강요하려는 社會主義革命家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실패한 농민혁명의 지도자처럼 돌아오지 않는 과거의 상태를 다시 불러오려는 鄉愁病의 革命家에 대해서도 경고하였다. 그에 의하면 革命은 제조되거나 교사되는 것이 아니었다. 革命은 인간이 저지하거나 촉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며, 오로지 사회적, 경제적 변화의 自然發生의 結果로서 생긴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社會主義는 民主主義와 불가분이라고 하는 신념을 굳힘으로써 점차로 마르크스主義의 중심적 교조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하였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民主主義는 社會主義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며 또한 가장 희생이 적은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야 말로 사회주의를 위하여 불가결한 政治的, 社會的 條件을 육성하는 데 최선의 수단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VII. 러시아 마르크스主義

유럽에서는 마르크스의豫言대로 資本主義體制가 崩壞되기 보다는 오히려 政治, 社會的 變化에 적극적으로 適應함으로써 共產主義革命이 일어날 可能

性이 회복하였다. 그러나 1917년 레닌과 그의 볼셰비키派의 主導에 의한 革命이 성공되자 러시아에는 러시아 마르크스主義 즉 레닌主義가 등장하게 되었다.

레닌은 마르크스의豫言과는 달리 후진적 러시아 社會에서 혁명이 일어난 것에 대해, 즉 볼셰비키의暴力에 의해 政權을 탈취한 데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레닌은 무엇보다도 새로 수립된 共產政權이 당면한 對內外的 問題들을 해결하고, 나아가 그들의 行動코오스를 理論的으로 說明하고 正當化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물론 레닌은 修正主義者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였고, 특히 階級鬪爭은 본질적으로 조금도 완화될 수 없다고 한 마르크스의 主張을 固守하였다. 레닌은 蘇聯의 입장과 그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언제나 資本主義國家들과의 적대적 맥락에서 파악하려고 하였다. 여기서 그는 勞動者들의 生活이 現代 資本主義帝國에서 왜 改善되었는가, 資本主義는 왜 봉괴되지 않는가, 民衆은 資本搾取者에 대해서 왜 革命을 일으킬 태세를 갖추지 않는가 등의 문제를 說明할 필요가 생겼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레닌은, 마르크스主義를 蘇聯의 現實的 與件에 맞도록 修正해서 適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레닌은 먼저 古典的 마르크스主義를 外形上 받아들이는 印象을 주면서 實質的으로는 古典의 마르크스主義로부터 대담하게 離脫하지 않을 수 없었다. 레닌의 이러한 思想的 轉換에는 플레하노프(Georgi Plekhanov)의 영향이 커졌다. 플레하노프는 1898年 ‘歷史에 있어서 個人的 役割’(The Role of the Individual in History)이라는 論文에서 歷史上 人間의 行動이 自由意志의 結果로서가 아니라 辨證法의 必然性의 結果로서 가장 잘 理解될 수 있다고 主張하였다(Plekhanov, 1940:17). 人間의 行動은 不可避한 事件들의 連鎖에 있는 不可避한 고리라고 理解되었다. 그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르크스主義는 그 社會의 地位와 精神姿勢로 말미암아 必然性의 도구로써 活用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立場에서 그는 러시아의 마르크스主義者들 중에서 正統派라고 評價받게 되었거니와 이것이 辨證法의 決定論(dialectical determinism)이라고 불리어 지게 되었다. 레닌은 플레하노프의 영향을 받고서 그와 유사한 마르크스主義의 解釋을 받아들였다. 레닌에 의하면 마르크스主義는 事物의 現存秩序의 必然性뿐만 아니라 人間들이 그것을 믿거나 또는 믿지 않거나에 關係없

이先行의 秩序 속에서 불가피하게 離脫되지 않으면 안될 다른 秩序의 必然性을 立證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社會運動을 自然史의 過程으로 다루었는데 이 運動은 人間의 意志, 意識 그리고 意圖와 關係 없을 뿐만 아니라 反對로 人間의 意志, 意識 그리고 意圖를 規定하는 法則들에 의해서支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레닌은 계속해서 “만일 意識的 要素가 文明史에서 副次的 役割을 수행하게 된다면 文明이 어떤 形態 또는 意識의 結果를 그 基盤으로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 自明해진다”고 주장하였다. 1914年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마르크스主義運動의 가장 革命的인 要素들이 古典的 마르크스主義의 緩慢한 構造 속에서 중대한 變化를 가져왔다. 이러한 狀況에서 레닌은 革命이란 動員과 組織의 영향, 특히 政治的 要因들의 結果로서 革命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레닌에 의하면 革命的 意識이라는 것은 社會의 經濟的 基盤에서 나타나는 自動的 結果라고 보았으나 大衆이 社會革命에 必然的인 意識을 自然發生的으로 發展시킬 能力を 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즉 그는 特殊한 資質을 가진 指導者가 必要하다고 생각하였다. 레닌의 엘리트主義는 체르니세프스키(Nicholas Chernyshevsky)의 작품인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What is to be done?)’에 그 根源을 두고 있다. 레닌은 체르니세프스키의 作品에서 “強力한 人間의 意志가 事態의 코스에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革命的 目的을 대중의 무질서한 운동에 불어 넣고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레닌은 그의 革命的 社會主義에 대한 엘리트主義의 概念을 定立하였을 때에 이를 가장 特징적으로 표출시킬 수 있는 제목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였다(Gregor, 1965:217-219). 1910년에 이르러서 古典的 마르크스主義에 대한 가장 중요한 修正은 혁명적 의식과 혁명의 조직적 전략에 관한 문제에 가해졌다. 1910년대를 통해서 혁명적 마르크스主義者들을 사로잡은 마르크스主義의 再定式化는 사회의식과 경제적 기반과의 推定的 관계에 대한 마르크스의 설명이 어떤 함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폭넓게 해석하는 데 있었다. 사회발전에 있어서 의지와 의식의 역할 문제는 전략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마르크스가 부수적으로 다루었을 뿐이었다. 물론 마르크스는 관념적 요소들과 물질적 요소들의 관계에 대한 어떤 일반적 명제들을 마르크스主義者들에게 제시했으나 이것들의 관계는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해석되기 쉬우므로 어느 편이든지 간에 다같이 그럴듯한 해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여기에서 레닌은 古典的 마르크스主義에 대한 엘리트주의적 해석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이와 같은 마르크스主義에 대한 레닌의 再解釋은 로자 루셈부르크와 같이 해박한 지식을 가진 마르크스主義者에 의해서 저항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레닌은 스스로 마르크스主義者라고 자처하면서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비록 그가 공식적 사회주의운동 안에서 소수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전략은 그의 위치가 혁명에 대한 유일한 정통적 마르크스主義적 해석에 의거하고 있다고 고집하는 것이었다.

제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레닌으로 하여금 더 긴급한 과제를 가져다 주었다. 즉, 그것은 프롤레타리아국가주의에 관한 것이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프롤레타리아 大衆은 國際的 勞動階級의 團結보다도 국제분쟁에 있어서 自國을 보다 중시한다는 사실이 나타나게 되었다. 레닌은 처음에 이 명백한 사실을 시인하지 않았으나 곧 이를 是認하지 않을 수 없었다. 레닌은 프롤레타리아가 국가주의적이라는 것을 부인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국가주의 문제를 해석하려고 기도하였다(Gregor, 1974:123). 그는 노동계급의 腐敗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이것이 프롤레타리아의 배반이라고 해석하였다. 그에 의하면 노동계급에는 帝國主義기에 독점자본의 특수이익에 봉사하는 프롤레타리아의 虛偽的 指導者들이 군림하면서 노동계급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레닌이 프롤레타리아국가주의의 變則을 설명하기 위해서 古典的 마르크스主義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기도에서 나온 것이다. 레닌의 帝國主義理論은 마르크스나 앵겔스의 著作들에서 나오지 않은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레닌은 제국주의 선진자본주의국가의 부르조아들이 세계의 많은 식민지를 약탈하여 노동계급을 매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勞動貴族이 노동계급을 사회주의의 배반자로 만들게 되었다.

또한 레닌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는 자동적으로 역사적 계급이익을 작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즉 혁명의식이 프롤레타리아의 경제조건의 반영이라는 가정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었다. 레닌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는 獨自的 이데올로기를 發展시킬 수 없으며, 혁명이 要求하는 것은 대중의 궁극적 이익을 식별할 수 있는 소수의 집단으로서의 前衛黨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가 革命的 動員과 組織에 대한 해석을 러시아사회에 맞도록 적용함으로써 혁명은 프롤레타리아가 없는 未開發國家에서도 혁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다. 프롤레타리아의 궁극적 이익을 인식한 혁명적 엘

리트는 세계의 역사적 프롤레타리아의 이름으로 대중 속에 혁명적 감정을 불어넣지 않으면 안된다. 프롤레타리아는 혁명적 엘리트, 즉 未來를豫見한 인텔리총의 의식의 내면 구석에 자리잡고 있으며 그들만이 프롤레타리아의 窮極的 利益을 代辯하며 그 이익은 선진국가들의 프롤레타리아가 識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레닌에 의한 古典的 마르크스主義의 修正은 역사에도 나타났다. 그는 그의 저서 ‘國家와 革命’에서 사회주의혁명은 즉시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자의 雇用, 人民投票, 소환, 보통선거, 평등선거, 노동자의 소유와 관리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레닌이 죽은 후 스탈린은 一國社會主義建設을 선택하였다. 부르조아지와 관료제에 대한 공격이 중지되었고 모든 官僚的 부르조아지는 하나의 전략적, 기능적 엘리트로서 사회주의체계에서 상층의 지위로 자리잡게 되고 노동자보다 20배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인민투표와 소환은 전적으로 폐기되었다. 1939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소위 ‘偉大한 愛國的 戰爭’은 사회주의적 國家主義의 특징을 더욱 부각시키게 되었다. 스탈린은 國際主義의 革命運動의 根據를 활용하면서 부분적으로 발전된 러시아에서 국가주의적 및 발전적 독재를 확립시켰다. 스탈린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國家機構, 位階의으로 組織화되고 또 관료제적으로 통제된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마르크스主義者인 리지(Bruno Rizzi)는 “제 1 차 세계대전 후의 발전이 古典的 마르크스主義에 의해서 예상하지 않았던 정치체계를 產生시켰다”(Gregor, 1974:123)고 지적하였다. 소련의 사회주의에서 발견된 표현에 의하면, 그것은 官僚的 集團主義(bureaucratic collectivism)라고 하겠다. 古典的 마르크스主義에 의거하면서도 相異한 環境에 맞도록 레닌과 스탈린에 의해서 修正된 러시아 마르크스主義는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공을 비롯한 다른 개발도상사회들에서도 유사한 양식으로 적용되었다.

## VII. 스탈린 後의 마르크스主義

1953년 스탈린이 死亡한 후 非스탈린化 運動이 전개되었다. 그가 死亡한 지 3년후, 1956년에 행한 후르시쵸프(Nikita Khrushchev)의 제20차 共產黨大會에서의 演說은 스탈린의 個人崇拜를 맹렬히 非難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의 犯罪와 偏執狂的 過誤를 폭로하였다. 제20차 당대회가 共產主義運動에 미친 영향은 두가지 측면 즉, 共產主義者의 精神狀態와 統治體系에서의 黨의 機能의 측면에서 나타났다.

이리해서 스탈린 시대에 소련의 教條的 해석 이외에는 어떤 해석도 이단시되던 마르크스主義는, 후르시초프의 평화공존 노선과 더불어 東歐 위성국가에서 다시 해석되게 되었다. 물론, 소련의 위협 때문에 마르크스主義의 사상적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으나, 동구국가들의 민족주의적 바탕 위에 그들은 나름대로의 변화, 수용을 피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유고슬라비아의 경우로서, 그들 자신은 마르크스主義者임을 자처하면서도 소련에 대해서는 脫蘇의 태도를 선언할 정도로 변화하였다. 특히 스탈린 사망 후에 東歐衛星國家들은 소련의 優位에 대해 疑問視하게 되었다. 즉,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한 스탈린의 해석에 대해서는 소련에서 뿐만 아니라 동구국가들에서도 배척을 받았다. 그 결과, 一元的 共產主義運動이 多元化되었고, 마르크스主義에 대한 公式的, 準公式的 및 非公式的 解釋들이 널리 擴散되기에 이르렀다.

콜라코우스키(Leszek Kolakowski)가 지적한 바와 같이 “스탈린의 退位는 한 權威의 崩壞 뿐만 아니라 制度 全體의 崩壞를 의미한 것이었다. 黨員들은 스탈린의 過誤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등장한 제2의 스탈린에게 희망을 걸 수가 없었다. 그들은 비록 스탈린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黨과 體系는 순결한 것이라고 하는 公式的 保證을 진지하게 수용하지 않게 되었다” (Kolakowski, 1978b:452-453). 共產主義의 道德的破滅은 짧은 시간 안에 權力의 全體系를 뒤흔들어 놓았다. 스탈린主義的體制는 黨支配를 正當화시킬 이데올로기의 結合力 없이는 존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 당시에 黨裝置는 이데올로기的 충격에 대해서 민감하였다. 그 후 레닌主義의 및 스탈린主義의 社會主義에서 全權力體系의 安定은 統治裝置, 體制의 全構造를 위협하는 官僚制의 混亂, 不確實性 그리고 墮落에 의지하게 되었다. 非스탈린化는 共產主義가 일시적으로 스스로 適應하기 위한 變化를 시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회복될 수 없는 病源體가 되었다. 非스탈린化的影響은 특히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劇的으로 나타났으며 그것은 또한 가장 위험스러운 政治的危機로 深化되었다. 결과적으로 非스탈린化는 殘忍한 彈壓으로 끝을 맺었거나와 共產主義 블럭 전역에 걸쳐서 일어난 그 荒廢는 소련 體系가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Kolakowski, 1978b:454).

‘非스탈린化’라는 用語는 共產黨에 의해서 公式的으로 사용된 적이 없었으나 그 대신 過誤와 歪曲을 시정한다든지 또는 個人崇拜를 극복한다든지 아니면 黨生活의 레닌主義的 規範으로 돌아간다든지 하는 경우에 언급되었었다. 이러한 완곡한 표현은 스탈린主義가 무책임한 大元帥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련의 유감스러운 過誤들이었으며 體系自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따라서 체제의 民主的 性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스탈린의 支配樣式을 마땅히 비난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 편 ‘스탈린主義’라는 用語는 體系를 스탈린의 人格과 연결시켰으며 그에 대한 非難은 民主化 또는 自由化 方向으로의 급진적 변화를 향한 신호라고 하겠다.

非스탈린化로 말미암아 첫째로 나타난 결과는 選擇的 테리에 의한 集團恐怖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후르시쵸프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數百萬의 住民들이 强制收容所로부터 解放된 것이었다. 이와 아울러서 變化를 가져온 것은 分權化의 추세와 競爭的 政治集團들의 形成이었다. 그 후 經濟改革이 시도되었고 어느 정도 能率이 향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重工業優先의 獨斷이 아직도 지배적이었으며 市場메카니즘을 풀어놓으면서 아무런 措置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大衆需要에 對應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일련의 變化들은 결코 民主化를 가져올 수 없었으며, 共產主義의 專制主義의 基礎도 흔들리지 않았다(Kolakowski, 1978b:456). 集團테리의 포기는 人間의 安全에 있어서 중요한 발전이 있으나 個人에 대한 國家의 絶對權力의 영향을 줄이지는 못하였다.

### VIII. 東歐에서의 修正主義와 네오 마르크스主義

非스탈린化 이후 소련 정치체계는 개인적 專制政治로부터 寡頭政治로 변화되었다. 국가의 만능적 권력이 잠식되면서부터 소련 정치체계는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스탈린주의는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연속에서 修正主義가 공산당 지도자들과 공식적 이데올로기 이론가들에 의해서 자주 거론되었고 다른 당원들이나 마르크스主義者들은 共產主義도그마를 공격하였다. 修正主義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정의되지 않았으나,

도그마티즘이란 이름은 스탈린 이후의 개혁에 반대한 당보수주의자들에게 붙여졌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修正主義란 민주적 및 합리적 추세를 함축하고 있다. 콜라코우스키에 의하면 “이전에는 修正主義란 마르크스主義에 대한 베른슈타인의 비판을 일컬었으나, 이제 당요직자들은 새로운 修正主義를 베른슈타인의 견해에다 관련지웠다. 그러나 그 관련성은 매우 희박하다” (Kolakowski, 1978b:457). 스탈린 사후에 있어서 修正主義는 베른슈타인으로부터가 아니라 스탈린 지배하에서 등장하였다. 당지도자들에 의해서 막연하게 사용되었던 修正主義는 1950년대와 1960년대 마르크스主義 안에서 共產主義 교조에 대해서 매우 파멸적 영향을 미친 정치적 및 지적 운동이었다고 하겠다. 1950년대 말 共產主義 이데올로기가 와해되었을 때, 체계에 대한 공격이 확산되었다.

修正主義者들은 黨見解를 피력했을 뿐만 아니라 黨派閥 간에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의 견해는 黨機構에 의해 칭취되었고 또한 黨의 이데올로기적 混亂에도 기여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치적 변화의 주요한 條件이 되었다. 그들의 批判들은 모든 領域에 영향을 미쳤으며 共產主義의 聖域을 점차적으로 침식하게 되었다. 그들의 어떤 要求들은 修正主義者들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었으나 다른 要求들은 反體制的인 非黨員들이나 또는 非마르크스主義者들에게도 공통적인 것이었다. 그들의 批判들은 全般的 民主化, 抑壓體系와 秘密警察의 폐지 또는 적어도 法률적 제약하에서의 경찰 등을 要求하는 데 집중되었다. 그들은 언론, 과학, 예술의 自由와 檢閥의 폐지를 要求하였다. 특히 그들은 黨內民主主義와 黨內에서의 派閥形成權도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修正主義者들 간에는 견해의 差가 생기게 되었다. 어떤 修正主義者들은 黨이 非民主的 社會에서의 민주적 섬(島)이 될 수 있다고 믿고서 당원들을 위한 민주주의를 要求하였다. 이러한 그들은 프롤레타리아獨裁 원칙을 明示的으로 또는 含蓄的으로 수용하게 되었고 支配政黨이 黨內民主主義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修正主義者들은 엘리트만을 위한 민주주의가 存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Kolakowski, 1978b:458).

修正主義者들의 또 다른 중요한 要求는 社會主義 블럭에서의 構成國家들 간의 國家主權과 平等에 관한 것이었다. 모든 블럭國家들에 있어서 소련의 감독은 많은 領域들, 특히 軍隊와 警察에서 철저하게 실시되었다. 동구의 여

리 國家들의 人民들은 소련에 대한 經濟的 依存과 또한 소련의 經濟的 摧取를 그들의 치욕으로 생각하였다. 폴란드 住民들이 反러시아적 감정을 가졌지만 修正主義者들은 傳統的 社會主義原則을 강조하면서도 民族主義的 用語를 사용하지 않았다. 修正主義者들의 批判은 經濟的 管理에도 集中되었다. 그들은 產業이 私有化되는 것을 要求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公有化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強制的 農業集團化의 中止, 견디기 어려운 投資計劃, 經濟에 있어서 市場條件의 役割擴大, 勞動者들에 의한 利潤公有, 企劃의 合理化와 非現實的 計劃의 포기, 企業을 지해하는 規範과 命令의 축소 등을 要求했다.

이러한 修正主義者들의 要求들은 다른 많은 住民들의 要求들과도 일치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民族主義的 主張이나 宗教的 主張보다는 社會主義的 論據와 마르크스主義的 論據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들의 體系에 대한 批判은 마르크스主義的 傳統에 의거한 것이 있다(Kolakowski, 1978b:460). 그들은 知的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 하였으나 그러한 論議가 전개되어 감에 따라서 스탈린主義가 레닌의 思想에서 연유된 당연한 結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政治적으로 그들의 論議는 共產主義이데올로기를 破滅시키는데 기여하였다. 社會主義暴力의 體系들이 직면한 狀況의 特異性은 마르크스主義와 레닌主義로 하여금 人道的 슬로건들과 民主的 슬로건들로 가득 찬 言語들을 사용하게 하였다. 그러한 슬로건들은 權力體系와 관련된 한에 있어서 공허한 修辭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表現과 生活의 現實을 기묘하게 對照시킴으로써 그들의 教條自體의 矛盾들을 폭로시키게 되었다. 이데올로기는 政治運動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결치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레닌主義에 집착하려는 기도는 修正主義者들에 의해서 포기되었고 신뢰할만한 마르크스主義에로 되돌아가려는 희망은 더 오래 지속되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마르크스主義的 社會主義가 레닌主義的 政治形態 없이도 존재할 수 있으며 또한 共產主義가 마르크스主義의 틀 속에서 비판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기도들은 마르크스主義의 傳統을 反레닌主義的 意味에서 再解釋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Kolakowski, 1978b:461).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서 蘇聯과 東歐에서는 스탈린統治下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修正主義的 批判과 要求들이 거세게 提起되면서부터 변화된

마르크스주의 또는 마르크스·레닌主義를 네오 마르크스주의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것은 결코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들의 이론이 아니며, 마르크스의 知的 흐름에 追從하고 있는 現代 共產主義者들의 思想이다. 그러므로 네오 마르크스主義는 마르크스主義의 亞流의 思想이라고 하겠다. 이론적으로 가장 세련된 마르크스주의자들도, 마르크스時代 이후 西歐의 條件들이 어느 정도 變化되어 왔음을 시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變化는 皮相的인 것이지 결코 根本的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마르크스의 資本主義에 대한 批判을 白紙化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미국과 같이 高度로 發達된 工業國家에 있어서 勞動者들의 相對的 豐饒은 네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볼 때 마르크스나 그들의 思想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De George, 1968: 144-149).

네오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하면, 마르크스가 資本主義 發展의 法則들을 發見했을 뿐만 아니라, 歷史 發展의 關鍵도 발견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唯物論的 歷史解釋은 자본주의 시대뿐만 아니라, 歷史發展의 初期에도 적용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唯物史觀은 歷史發展에 대한 假說 위에서 성립되고 있을 뿐이며, 全歷史에 걸쳐서 상이한 社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一般化시킬 수 없는 것이다. 1956年 以後에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스탈린 統治下에서 일어났던 事件들의 一部가 必然的인 것이었지만, 個人崇拜의 결과로 말미암은 獨斷的인 것도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들은 또, 共產主義의 路線을 걷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며, 施行錯誤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社會主義下에서는 下部構造의 基盤이 아직도 決定的 要素이지만, 上部構造의 積極的 役割이 더욱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共產黨의 리더쉽에 대한 正當性을 주장하기 위한 根據로 제시되는 것이다. 상부구조의 知識體系를 중시하며 보다 많은 전문적인 知識을 要求한다는 것은 당의 리이더쉽의 기반을 강화하게 된다는 이치와 같다. 黨指導者들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洞察力を 활용해서 經濟基盤의 發展을 연구하고, 그 발전의 통로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上部構造의 變化를 위한 下部構造의 기초를 확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네오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하면 社會主義는 일부 初期 마르크스

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資本主義의 완전한 否定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資本主義와 社會主義間에는 계속성이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生產手段은 어떤 形태에서 다른 形태로 變化될 뿐 아니라, 社會主義上部構造는 그 社會의 存續을 위해서 필요한 法則들을 충분히 發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De George, 1968:38-42).

이렇게 볼 때 네오 마르크스주의는 소련과 東歐國家들에서 나타났으나 그 것은 個人的 思想이나 集團의 영향의 結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共產主義國家들에 있어서의 성장하고 있는 產業化, 教育水準 向上, 餘暇時間의 증가, 다양한 재화와 이용될 수 있는 서비스의 증가에 수반해서 나타난 것이지만 네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가 아직도 存在하고 있으며 그것이 스탈린체제 보다도 더 적절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려고企圖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에 표면화되고 있는 마르크스주의가 종국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려고企圖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네오 마르크스주의는 過去의 共產主義者들이 예측하지 못한 政治的, 經濟的 및 社會的 變化의 趨勢에 적응하기 위한 試行錯誤의 맥락에서 理解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레닌主義의 경직화된 이데올로기의 追求와 變化되고 있는 現實간의 乘離를 방치하지 않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네오 마르크스주의의 登場은 共產主義社會가 實用主義的 方向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마르크스·레닌主義의 바탕이 되고 있는 基本 哲學의 骨格과 그들의 窮極的目標, 즉 世界 共產化의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 IX. 맷 음 말

마르크스主義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中心的 課題는 資本主義 體制에 대해서 철저하게 批判하고 이에 의거해서 체제를 破壞하는데 있었다. 그래서 마르크스主義는 단순한 思想이라고 하기 보다는 革命思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主義의 目的是 共產主義革命을 이론적으로 正當化하고 또한 實踐的으로 遂行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마르크스主義는 革命을 理論적으로 정당화하고 또한 그 실천적 방법을 체계화하는데 완벽하게 성공

을 거두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마르크스主義 자체는 哲學的, 理論的 및 經驗的 次元에서 矛盾과 誤謬를 内包하고 있음을 누구도 否認하지 않는다. 마이어(Alfred G. Mey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간단명료한 마르크스主義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것은 복합적으로 相互關聯된 命題들의 교묘한 집합이라고 하겠다. 그에 의하면 “우리들은 마르크스主義를 단지 宇宙 또는 社會의 本質에 관한 일련의 命題들로만 보아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Meyer, 1969: 8). 마르크스主義에 있어서 理論과 實踐이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主義의 이데올로기의 特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似而非統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視角에서 마이어는 마르크스主義는 처음부터 그 內在的 矛盾 때문에 이미 파멸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르크스主義가 불가피하게 變化하지 않을 수 없는 理由는 마르크스主義 自體의 이론적 및 方法論的 矛盾에서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資本主義體制의 環境變化에의 適應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자본주의체제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豫言한 것과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修正 또는 發展함으로써 崩壞하지 않았다. 반면에 소련을 비롯한 社會主義 블력의 다수 국가들이 사회주의 體制의 硬直化된 統治의 틀 속에서 社會經濟의 沈滯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자 체제의 開放과 改革을 斷行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存續하기 어려운 危機狀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 체제의 危機狀況은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의 表現과 같이 “共產主義는 出現한지 불과 100년도 못되어 衰退해 가고 있다”(Brzezinski, 1989:11). 20세기의 마지막 시기에 거의 모든 共產主義體制 안에서 사실상 마르크스 해닌 주의의 實踐과 斷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改革들이 모색되고 있다.

社會主義體制들이 資本主義 市場經濟原理를 더욱 폭넓게 도입하고 또한 정치적 多元化에 상응한 改革을 持續해 나간다면 과연 마르크스主義는 終焉을 告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의 체제로 變化될 것인지 우리의 關心이 모아지게 된다. 분명한 것은 마르크스主義가 劇的으로 變化를 지속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참 고 문 현

- Aganbegyan, Abel  
1988 *The Challenge: Economics of Perestroika*. London: Hutchinson.
- Andics, Hellmut  
1969 *Rules of Terror: Russia under Lenin and Stalin*, trans. by Alexander Lieve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Aslund, Anders  
1989 *Gorbachev's Struggle for Economic Reform*.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Avineri, Shlomo  
1968 *The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of Karl Marx*.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udin, Louis B.  
1907 *The Theoretical System of Karl Marx*. Chicago: Kerr.
- Brzezinski, Zbigniew  
1989 *The Grand Failur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De George, Richard T.  
1968 *The New Marxism*. New York: Pegasus.
- Fleischer, Helmut  
1970 *Marx und Engels*. Munich: Alber.
- Giddens, Anthony  
1971 *Capitalism and Modern Social Theor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rbachev, Mikhail  
1987 *Perestroika: New Thinking for our Country and the World*. London: Fontana/Collins.
- Gregor, A. James  
1965 *A Survey of Marxism: Problem in Philosophy and the Theory of History*. New York: Random House.
- 1974 *The Fascist Persuasion in Radical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eiss, Robert  
1975 *Hegel, Kierkegaard, Marx*. trans. from the German by E.B. Garside, New York: Dell Publishing Company.
- Hook, Sidney  
1983 *Marxism and Beyond*. Totowa, N.J.: Rowman and Littlefield.

- Jeffries, Ian  
1990 *A Guide to the Socialist Economies*. London: Routledge.
- Kautsky, Karl  
1936 *The Economic Doctrines of Karl Marx*. trans. by H.J. Stenning, New York: Macmillan.
- 1971 *The Class Struggle*. trans. by William E. Bohn, New York: Norton.
- Kolakowski, Leszek  
1978a *Main Currents of Marxism: Its Rise, Growth, and Dissolution, vol. II*. Oxford: Clarendon Press.
- 1978b *Main Currents of Marxism: Its Rise, Growth, and Dissolution, vol. III*. Oxford: Clarendon Press.
- Lindsay, Jack  
1981 *The Crisis in Marxism*. Totowa, N.J.: Barnes & Nobel Books.
- Livergood, Norman D.  
1967 *Activity in Marx's Philosophy*. The Hague: Nijhoff.
- McLellan, David  
1970 *Marx Before Marxism*. New York: Harper and Row.
- Meyer, Alfred G.  
1969 *Marxism: The Unity of Theory and Practic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Ollman, Bertell  
1971 *Alienation: Marx's Conception of Man in Capitalist Socie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lekhanov, Georgi  
1940 *The Role of the Individual in History*. New York: International.
- Sallnow, J.  
1989 *Reform in the Soviet Union—Glasnost & the Future*. London: Pinter Publisher.